

‘광’ 과 ‘전자’ 를 결합한 신개념의 광학계측장비 개발에 총력

광관련 전자·기계 조립 및 검사장비 전문업체 존테크

2000년 4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안양국제유통단지내에 등지를 든 존테크(대표·최상규)는 광 관련 전자, 기계 조립 및 검사장비 전문업체이다.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및 장비 공급을 통한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는 디지털카메라 및 카메라폰과 관련한 제조 및 시험장비를 30년 전통을 가진 일본 카메라 및 LCD 장비 전문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는 광학장비 유통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회사 설립 전부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광학 검사장비 개발 및 제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장비의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2000년 4월 설립된 존테크는 디스플레이의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및 장비 공급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 그 외 동남아 등 해외 전략지역의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기반을 닦아왔다. 최근에는 디지털카메라와 카메라폰의 폭발적인 성장과 관련하여 외국의 신기술 도입과 국내의 시장 진입 및 확대를 위해 디지털카메라 및 카메라폰 관련 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2003년부터는 디지털카메라 및 카메라폰 관련 제조 및 시험장비와, LCD 관련 장비 등을



▶존테크의 최상규 대표



일본의 전통 있는 회사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국내 판매에 나섰다.

단순히 기간과 외형으로 따지자면 역사도 짧고 아직 조그만 회사에 불과하지만 존테크가 나름대로 탄탄하게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노하우는 끊임없는 변신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삼성전자의 VTR, 캠코더 사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최상규 사장은 현재 광학장비의 유통에만 주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검사장비의 국산화 준비를 도모하고 있다.

최상규 사장은 “광과 전자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을 개발, 제조하고자 하는 꿈이 곧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상규 사장으로부터 존테크의 사업현황과 주력제품,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주력제품에 대해서...

A 우선 회사 매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LCD COLOR FILTER RGB CONTRAST TESTER가 있다.

본 장비는 LCD의 핵심 부품인 COLOR FILTER의 RGB 잉크의 입자의 상태, 내구성을 측정하고 각 RGB의 최대·최소 휘도치, 명암비(최대 10,000:1) 및 x, y, z 좌표값 등을 측정한다. 고품질 잉크의 품질관리에 필수장비이며 자동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측정은 물론 1분 이내에 10회의 반복측정으로 안정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카메라폰 렌즈 및 모듈관련 장비의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30만 화소 위주의 제품 구조에서 최근 300만 이상 다기능 및 고화소로 진행됨에 따라 작업자 눈으로 검사하던 방식에 한계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당사는 고화소는 물론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기 위한 카메라 기계식 셔터, 플래시, 오토 포커스 및 줌 렌즈, 광원장치와 각종 TEST CHART 및 VIEWER BOX 등 각종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이밖에 LCD, PDP, 유기 EL, LED 등 관련 광

학 측정 장비 등도 공급하고 있다. 중대형 광시야각 광학특성장비, LED POWER 측정기와 발광강도(NFP), 배광강도(FFP)PATTERN 측정, 수명측정 및 분광 SPECTRAL 측정도 가능한 LED 광학특성평가 장치, 고분자 구조 해석용 레이저 광산란 측정장치, 3차원 GONIO PHOTO 자동 계측장치, 백라이트 광학특성장치·CCFL 특성 측정장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Q 사업 현황은?

A LCD분야로는 현재 일본 도요인크, 미쿠니인크 등과 유럽 및 국내 LG, SKC 등에 15여대를 공급했으며 이외에도 각종 도료나 잉크 관련 회사와 현재 상담 중에 있다.

카메라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삼성전기, LG이노텍 등과 이외에도 카메라모듈 회사들이 있다.

작년 대비 고기능 카메라 개발 및 판매, LCD 관련 광학소재 국산화 개발에 따른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 품목개발 및 국산화 강화로 사업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LCD Color Filter RGB Contrast Tester(모델명: CT-1). LCD의 RGB Color Filter용 고품질 도료의 품질관리에 필수품이며 잉크의 입자상태, 내구성의 균형을 측정하는 장비



Q 관련 시장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A 세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급성장에 힘입어 카메라폰 역시 매년 수직상승 구조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으로 확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카메라 모듈의 판매대수는 6,000여만 대로 추정되며 2005년에는 약 1억 3,000여만 대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 위주였으나 국내 모 업체에서는 500만 화소에 이어 700만 화소 제품을 개발했으며 300만 화소 오토 포커스와 광학줌 기능을 가진 카메라폰도 개발, 판매 중에 있는 등 질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하지만 고화소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진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사진만 찍고 어느 정도의 배경과 인물 사진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카메라 수준으로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젠 화질을 넘어서 카메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도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토 포커스, 광학 줌, 전자 셔터가 아닌 기계식 셔터 기능, 화이트 밸런스 기능, 스트로보 플래시 기능, 손 떨림 방지 기능 등이 그것들이다. 이런 기능들이 작은 휴대폰 안에 들어간다면 향후 멀티미디어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Q 향후 계획은?

A 국내의 카메라폰 시장 성숙과 맞물려 다양하고 하이테크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조 및 검사 장비들 또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메라 시장의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관련 장비들 대부분은 아직도 일본에서 비싼 돈 주고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존테크는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진기술과 광학기술을 접목한 카메라 관련 장비를 국산화하여 가격경쟁력과 빠른 납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광학소재 관련 장비의 지속적인 개발 및 도입을



▶Color Viewer 광원(모델명: VLB-2) - 투광성 Pattern 조명용 광원



▶Auto Shutter Tester(모델명: as50)

추진함은 물론 조기에 관련 장비의 국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Q 협회 및 광학세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최근 우리나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LCD, 카메라 관련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우리나라 1등 품목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주력 품목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과 관련한 바탕에는 일본등 외국업체의 광학 관련 장비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광학제품이나 장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회 회원간 정보교환을 통해 제품의 국산화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인차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